

무색무취 야구에... '야구 명가' 자존심도 무너졌다



지난 10월 SSG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중국 감독. <KIA티거즈 제공>

KIA '뿔난 팬심' 달랠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가 '뿔난 팬심'을 달랠 수 있을까? KIA는 2023시즌을 6위로 마감하면서 '가을잔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하면서 체면치레는 했지만 올 시즌에는 4승 12패의 열세를 기록한 두산베어스에 밀려 5강 탈락의 쓴잔을 들었다.

사실 지난 시즌도 뒤끝이 개운지는 못했다. 5강 탈락이를 하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한 KIA는 예상과 달리 KT를 상대로 2-6패로 하루 만에 가을을 마감했다. 타선의 집중력도 아쉬웠지만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던 투수 교체 실패로 승기를 내주며 KIA의 가을은 허무하게 끝났다.

올 시즌 KIA는 더 높은 곳을 예고했지만 결과는 5강 탈락이었다. 6위라는 결과도 결과지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무색무취' 야구, 선수단 관리와 맞물린 줄부상에 팬심이 들끓고 있다.

올 시즌을 돌아보면 '부상'과 '이닝'이 KIA의 키워드가 됐다.

타석에서는 부상이 가장 큰 이슈였다.

시즌 시작부터 부상 악재를 만났다. 김도영이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두 경기만에 재합군이 됐고, WBC 대표팀에 발탁됐던 나성범은 대회기간 입은 종아리 부상 여파로 8월 23일 뒤늦게 시즌을 열었다.

시즌 초반 부상은 어쩔 수 없는 악재였더라도 허다라도 시즌 막판 이어진 줄부상은 '관리' 측면도 들여다봐야 하는 '실패'다.

KIA는 나성범, 최형우, 박찬호가 연말 시즌 아웃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관리'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다.

나성범은 9월 19일 LG와의 경기에서 적시타를

선수 관리 실패로 부상 악재 중요한 순간마다 줄부상에 외국인 투수 농사까지 실패 김중국호 불신 갈수록 커져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 절실

치고 나간 뒤 김선빈의 우익수 플라이 때 3루 진루를 시도하다가 헬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기록 많은 시즌, 팀의 역전까지 노려보기 위해 달렸던 나성범이지만 결국 '이겨보려다'가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나성범은 앞서 9월 10일 LG전에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맞아 오른발 새끼발가락을 다쳤다. 병원 검진 결과 뼈 타박 진단을 받아 한숨을 돌렸지만 팀 순위 싸움을 위해 몸 상태가 완벽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격 전면에 서야 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수비까지 맡아 외야로 나갔다. 김중국 감독은 자신이 예고했던 시점보다 빠르게 나성범을 수비에 도입했고, '우익수 나성범' 카드는 이를 만에 사라졌다.

"후배들과 가을 야구를 하는 게 목표"라면서 타석에서 고군분투했던 최형우도 순위 싸움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1루 전력 질주를 하다가 쓰러졌다.

박찬호는 부상 투혼 속 부상이었다.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타석에서 이탈했던 박찬호는 예정보다 빠르게 다시 방망이를 들고 KIA 공격에 불을 붙였지만 결국 사구에 쓰러졌다.

주축 선수들에게 부담이 가중된 운영과 긴박했던 순위 싸움으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결국 중요한 순간에 줄부상이 발생했다.

리그 전체가 부상으로 유난했던 시즌을 보냈지만 유독 '부상'에 취약했던 KIA는 선수층 강화, 효율적인 전력 운영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타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린 '무색무취'의 야구에 대한 고민도 남았다.

마운드에서는 '이닝'에 KIA의 집중이 막혔다. 올해도 외국인 투수 농사가 실패했다. 2년 연속 시즌 중반 외국인 투수 두 명을 전면 교체하는 상황을 맞았고, 그 결과도 시원치 않았다.

'고졸 루키' 윤영철이 122.2이닝을 소화하면서 팀 내 이닝 3위, 불펜 투수 임기영이 82이닝을 던지면서 파노니(82.1이닝)에 이어 5위에 랭크되는 듯지 못할 성적표가 만들어졌다.

자원도 아쉽지만 '구슬을 깨는' 벤치의 역할도 부족했다. 상황과 상대라는 외부 상황, 컨디션이라는 내부 상황까지 세밀하게 고려한 투입과 교체에 실패하면서 KIA는 5강 싸움에서 졌다.

3년이라는 시간을 약속받은 '김중국호'는 지난 2년 선수들 면면을 활용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2023시즌이 되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크다.

시즌에 앞서 장정석 단장이 '금품 요구 논란'으로 해임되는 등 그라운드 밖 악재도 있었고,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KIA팬들은 이의리의 황당한 탈락과 최원준의 부상으로 속을 끓였다. 시즌 막판에는 가장 열정적으로 가을 야구를 위해 달린 선수들이 연달아 쓰러졌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무기력한 팀이 됐던 만큼 팬들에게는 상처만 남은 시즌이 됐다.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 쇄신이 없다면 KIA의 미래도 없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내달 4~5일 서창교 일원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 민물낚시 대회가 오는 11월 4~5일 이틀간 광주 서창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민물낚시대회는 광주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3 야외 레저스포츠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다.

당초 지난 9월 15~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날씨 사정으로 연기됐다. 대회는 붕어와 배스 등 두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스는 2마리 중량합산, 붕어는 총길이로 순위를 결정하고, 각 부문별로 시상금과 시상품이 수여된다.

참가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24일까지 문자 접수(붕어 010-5421-8811·배스 010-6330-8732)를 통해 300명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대회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미끼, 낚시집게, 장갑, 도시락 등이 제공된다. 참가자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광주지역 특산물 및 브랜드 상품도 증정한다.

김세영 광주시체육회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전국 낚시인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처음 열리는 전국 낚시대회에 개인과 가족 모두가 참여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체전 열기 잇는다...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오늘 개막

순천시 7000여명 참여 3일간 열전

서울 선수단도 참여 우호교류 다져

생활체육인들의 최대 잔치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이 순천에서 막을 올린다.

전남도체육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제35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도약하는 일류순천과 함께 여는 행복 전남'을 주제로 펼쳐지는 생활체육축전은 전남 22개 시·군

7000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해 24개 종목(정식 21개·민속 1개·시범 2개)에서 고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펼친다.

정식종목은 검도와 게이트볼을 비롯해,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산악, 소프트테니스, 수영, 씨름, 야구, 육상, 족구,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이며, 민속종목은 줄타리기, 시범종목으로는 바둑과 파크골프가 준비됐다.

24일 오후 3시 30분 순천팔마경기장에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식, 국민의례, 개회선

언, 대회기 제양, 주요내빈 축사, 선수단 선서 순으로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후 진성, 노라조, 거미, 장윤정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행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홍보부스와 푸드트럭, 문화체험 부스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경찰, 소방, 응급구조, 인력과 행사지원 근무자를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대축전 시군별 참가인원은 해남군이 41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진군이 377명, 영암군 369

명, 무안군 360명, 광양시 348명, 구례군 329명, 고흥·완도·진도군이 324명 등이다.

종목별 참가인원으로는 축구가 22개 시·군 전원이 참가하며 473명으로 가장 많고, 배드민턴도 432명, 야구 375명, 배구 352명, 족구 267명, 소프트테니스 257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최대의 생활체육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페어플레이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한층 성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체육축전에는 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단 4개 종목 60명 선수단이 참가해 수영, 농구, 족구 등에서 기량을 선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1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거점형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의 배드민턴 클럽교류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클럽교류전 성료

제3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거점형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의 배드민턴 클럽교류전이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운

영되고 있는 이번 클럽교류전에는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부산(라라클럽), 광양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등 3개클럽 110여명이 참여했다.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배드민턴부에 꾸준히 참

여하며 실력을 키워온 광주 선수들은 다른 지역 선수들과 서로 파트너가 되어 기량을 겨뤘다.

특히 지역 학부모들이 대표선수로 함께 참가해 좌식배드민턴 이벤트 게임을 참여하는 등 장애인기주

모두가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 이번 교류전에 참가한 부산과 광양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향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영호남 장애인들이 함께 호흡하며 운동할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했다.

참여자들은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육성돼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이정수(지체장애·전남사대부고) 처럼 제2의 이정수를 배출하고자 클럽 지도자와 함께 매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김미진 사무국장은 "이번 교류전을 통해 영호남 장애인들의 화합 장을 만들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클럽과 교류전을 통해 스포츠로 하나 되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전국 최초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생애주기별(학생·성인·어르신)과 수준별(초급·중급·선수), 장애유형별(지적·지체)로 나누어 배드민턴, 탁구, 파크골프, 수영 4종목을 전문지도자가 지도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30일
- 2관 퍼피 구조대: 더 마이티 무비, 더 년 2
- 3관 익스펜더블 4,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 4관 엑소시스트: 믿는 자
- 5관 블루 자이언트
- 6관 30일
- 9관 플라워 킬링 문, 세이 예스 어게인
- 7관 싸네거블 화란
- 8관 싸네거블 1947 보스톤, 천박사 퇴마 언
- 구소: 설경의 비밀, 화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2023-10-01(일) ~ 2023-10-29(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포커스 민아*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
일시: 2023-11-17(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62-613-8233